

지식인과 도덕성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나는 지난해 학생들을 설득해 벤처기업을 창업토록 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주)엠아이를 창업했으나 학생들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학교를 휴직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 지원기로 했다. 국립대학교 직원의 신분으로서 도덕성 앞에 고민도 했지만 IMF극복과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대목에서 자신감과 긍지를 찾았다. 요즘은 “잘 되어가는가”라고 아는사람들이 물으면 나는 “좋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라고 대답한다.

하 교 재직 중에 학생들에게 벤처를 시작하도록 설득한 결과 1997년 (주) 엠아이가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되었다. 고속영상처리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처음부터 많은 설득 끝에 함께 뛰어들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자발적 참여보다는 권유에 의한 참여였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분명히 아주 우수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시작한 일인 데도 사업의 진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학생들 설득 벤처기업 창업

문제는 나에게도 있었다.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잘하면 사업이 제대로 잘 굴러가리라 생각한 것이 나의 판단착오였다. 사업이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회생활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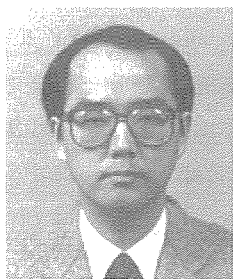
진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벽이 있었다.

1998년 3월, 내가 직접 학교를 휴직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2~3년 전적으로 도와주기로 결심하였다. 사업의 응원단 위치에서 직접 뛰는 선수로 내려온 것이다.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설득하여 보았더니, IMF 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친척들과 동료들로부터 1억9천만원의 증자를 할 수 있었다. 회사의 사업계획과 실적을 보여주지도 않고 순전히 나를 믿는 분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증자에 참여해주신 것이다.

깊은 감사를 느낀다. 이 정도면 아껴 쓸 경우 앞으로 2년동안은 열심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일 뿐 아니라 만일에 사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라도 대비할 수가 있기에 자신감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열심히 뛰어 다녔다. KAIST에서 박사학위를 한 후배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사업에 합류하였으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결과, 아주 새로운 사실(적어도 나에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경꾼과 직접 뛰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 회사 고객들의 신뢰는 매우 지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왜 미리 그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 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작은 깨달음은 또한 나 자신의 '바로 서기'에서 출발한 것임을



金在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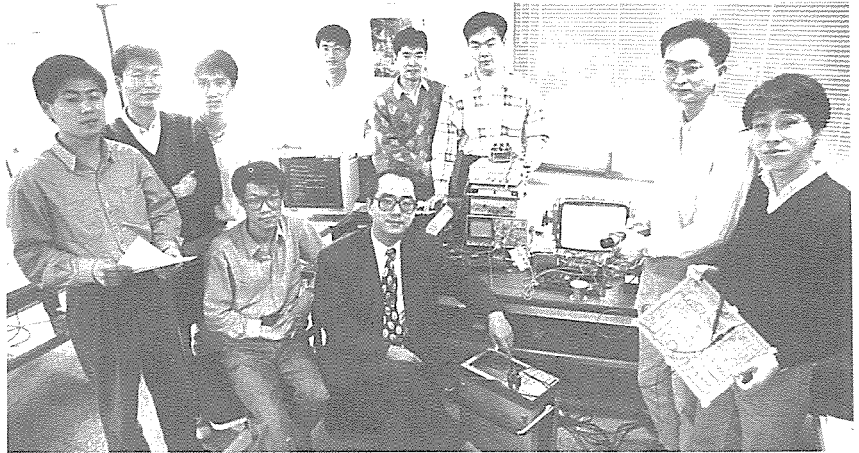
(주) 엠아이 연구소장/부산대공대 전자공학과 휴직중)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휴직하기 전 1년동안 국립대학교 직원의 신분으로는 사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학생 대표가 사장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사회와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실질적 사장은 내가 맡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체적인 사업의 형태와 대학에서의 강의, 학생지도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던중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이 순간 순간 나 자신을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도덕성과 타협하면서 살아온 것'이라는 데 대해 죄책감이 느껴졌다.

특별법 제정 후 1호로 휴직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 죄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절대자가 요구하는 삶에서는 벗어난 나의 생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했다. 사업에 대한 참여를 중단하느냐, 대학을 휴직하느냐에 대해 고민한 끝에 휴직을 결심했다. 휴직 후, 대학에서 나오던 나의 월급은 없어졌고, 사업을 잘 해야만 내가 먹고 살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나는 주위에서 누가 보아도 정리가 되고 당당한 상황이 되었다. 만나는 사업의 파트너들에게 "휴직하고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벤처특별법이 통과된 후 제 1호로 휴직을 했고, 또 제자들의 사업을 돕는다고 하여, 전국의 일간지와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다. 많은 전화가 걸려왔고, 그 중에 지금 사업의 동반자로서 깊이있는 상호 협력 project를 진행 중인 분들도 생겼



다.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 기여를 해주실 분들이 나타난 것이다. 내가 바로 서기 위해 결심하고, 자그마한 실천을 행한 이후 실로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 모든 행운이 나의 작은 바로 서기를 실천하려는 데서 출발된 것임을 볼 때, 정말로 절대자가 이 세상을 잘 굴러가도록 설계해 두셨다는 생각이 든다.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 큰 죄는 아니지만, 편법을 사용하고 따라서 명분과 대의를 잃어버리는 일을 때때로 행해온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만일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의와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IMF의 극복은 매우 빨리 이루어지며, 그 이후에도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매우 손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나라는 교육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창의력이 많은 데, 모자라는 것은 절대적 도덕심과 선진 기술과 그 운용에 대한 경험이라고 본다. 전자는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에서 찾아야 하고, 후자는 시일이 필요한 일이다. 전자가 해결되면 후자는 세월이 해결해줄 것이다. 그러나, 전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는 엄청난

불신 비용을 치러야하며 그것이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헛똑똑이 되지 마라' 교훈 삼아

얼마전 '헛똑똑이가 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가 깊이 깨닫게 된다.

요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잘 되어가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잘 되어가기 때문에 "좋은 냄새는 많이 나는 데...." 라고 대답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향기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좋은 냄새가 피어나고, 지난날의 악취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업이 잘되면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면 40%는 이웃 사랑을 위해 사용하고, 40%는 재투자하며, 20%는 이 일에 종사한 사람들이 나누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동의해 주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는 젊은이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고, 나의 제자들이기 때문이다. ①7